



# 신기하다, 10승 투수 기다린다, KS 우승

KIA 타이거즈의 불펜진 중심 역할을 한 전상현이 처음 출전하는 한국시리즈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활약을 다짐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믿을맨' 전상현, 선발 위기 속 마무리 오가며 '눈부신 활약'**  
**"타자들 덕분에... 처음 오르는 한국시리즈 기대돼, 재밌게 하겠다"**



신기한 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 전상현이 기다렸던 순간을 맞았다. 올 시즌 KIA 마운드에는 부상 이어졌다. 선발진의 동반 이탈 속 마무리 정해영도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부상 마운드에서도 전상현은 굳게 자리를 지키면서 KIA의 우승 질주를 이끌었다. 22일까지 64경기에 나온 전상현은 64.2이닝을 소화하면서 4.04의 평균자책점으로 10승 5패 7세이브 17홀드를 기록했다. 정해영의 부상 공백 속 마무리로 역할을 하기도

했던 전상현은 7세이브 17홀드를 수확하며 불펜진 중심 역할을 했다. 여기에 10승도 기록하면서 팀에서 제임스 네일(12승), 양현종(11승)에 이어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기도 했다. "10승 투수가 됐다는 부분은 신기하다"며 웃은 전상현은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야수 형들, 타자들 덕분에 10승을 했다. 운이 많이 따랐다. 일단 내 역할을 하고 내려온 상태에서 타자들이 역전해 준 경기가 작년부터 많았다. 나는 내 역할만 했다. 그 뒤에 타자들이 더 집중해줬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타자들 덕분에 10승을 했지만 전상현은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상현은 "선발 10승과 중간에서의 10승 느낌은 달라서 큰 느낌은 없다. 홀드, 세이브를 더 많이 하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상현은 프로 입단 이후 매년 우승 순간을 꿈꿨다. 그리고 지난 17일 KIA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하면서 일단 1차 목표를 이뤘다. 전상현은 "조중고에서 전국대회 우승을 다 해봤다. 프로에서도 꼭 해보고 싶었다. 정규시즌 우승을 하고 소름도 돋고, 울컥했다"며 "삼페인도 터트리고, 그런 경험 처음 해봤는데 많이 좋았던 것 같다. 그날 엄청 행복했다. 그래서 한국시리즈 우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규시즌 우승 순간을 만끽한 전상현은 더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전상현은 "솔직히 우리나라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해야 인정받는다. 통합 우승하면 인정을 많이 받는다. 만약 정규시즌 우승했는데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못하면 뭔가 패배자인 것처럼 느낌이 들 것 같다. 꼭 통합 우승하고 싶다. 우승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며 "집에서 TV로만 다른 팀 우승하는 것을 봤다. 우승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처음 정규시즌 우승을 경험한 전상현은 낯선 준

비도 해야 한다. 한국시리즈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가을 무대'를 위해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할 각오다. 전상현은 "남은 시즌 더 해보고 싶은 것은 없고, 지금 하던 대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 한국시리즈가 남아있어서 밸런스가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유지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봐서 해봤던 형들에게 조언 듣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한국시리즈를 생각하면 설렌다. 한국시리즈 무대 자체를 밟는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재밌을 것 같다. 열기 자체가 다르니까 더 아드레날린이 나올 것 같다. 기대가 많이 된다. 재밌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또 "올해 유독 팬들이 많아졌고,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덕분에 정규시즌 우승할 수 있었다. 전국 어디나 매진 경기도 많았다. 팬들의 그런 응원 덕분에 힘이 더 났던 것 같다"며 "소리에 더 올라오는 스타일이다. 한국시리즈에서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통합 우승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팬들과 함께 할 뜨거운 '가을잔치'를 그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신인 오늘 입단식

투수 김태형 등 11명 챔피언서

KIA 타이거즈의 '2025 루키'들이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KIA는 이날 오후 3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2025년 신인 선수 입단식을 연다. 행사에는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광주 출신의 덕수고 투수 김태형 등 신인 11명과 최준영 대표이사, 심재학 단장 등 구단 임직원이 참석한다. 입단식은 신인 소개와 유니폼 착용, 쏘다발 및 기념품(아이엠프 스튜디오 의류 세트, 정장 상품권) 전달, 대표이사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인 선수들은 입단식이 끝난 뒤 이범호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상견례를 갖는다. 또 경기전 그라운드에서 나와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갖는다. KIA 유니폼을 착용한 신인 선수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프로 무대에 뛰어드는 소감을 밝히게 된다. 이어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는 신인 선수들은 시포자가 돼 부모님이 던지는 공을 받으려면, 프로 선수로서의 출발을 알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치유의 섬' 완도서 열린다

26~27일 22개 시·군 1142명

치유의 섬 완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마당인 '2024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펼쳐진다. 오는 26~27일 청혜전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완도 소재의 10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장애인 807명과 비장애인 335명 등 총 1142명 출전한다. 이들은 게이트볼·좌식배구·배드민턴·보치아·탁구·축구·농볼·육상·바둑·파라골프 등 10개 정식 종목과 줄다리기·줄넘기·다트 등 3개 화합 종목 등 총 13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또 체험 종목으로 뉴스포츠가 운영된다.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의 개·폐회식은 각각 26일 오전 10시 30분과 27일 오후 1시 30분에 청혜전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겸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 신우철 완도군수 겸 전남도생활체육대추전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계획이다. 대회 시상식은 27일 오후 2시 성직발표에 이어 진행된다. 각 종목별 1~3위와 우수종목 경기 단체 등에 트로피와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북한 여자 축구, U-20 월드컵 품다

일본 1-0 제압...통산 3번째 우승

북한이 '아시아의 강호' 일본을 꺾고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북한은 23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타디오 네메시오 카마초에서 열린 2024 콜롬비아 FIFA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제압하고 최종 승자로 우뚝 섰다.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2006·2016년)과 한 차례 준우승(2008년)을 차지한 북한은 8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우승을 일궜다. 이로써 북한은 독일, 미국과 함께 역대 최다인 3회 우승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우승을 노린 일본은 2022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년 전 결승전에서는 스페인에 1-3으로 져 우승이 무산됐다. 일본은 이 경기를 통해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 패배를 설욕하려 했으나 이 역시 좌절됐다. 당시 결승에서도 북한이 일본을 2-1로 꺾었다. 역대 U-20 여자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끼리 결승전을 펼친 건 2006년 대회에서 북한과 중국이 맞붙은 이후 역대 두 번째였다. 준결승에서 미국을 1-0으로 격파한 북한은 일본과 결승전에서도 초반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미국전 결승 골을 터뜨린 '골잡이' 최일선이 이날도 득점포를 가동했다.



북한 20살 이하 여자축구 선수단이 23일(한국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 U-20 여자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 뒤 우승컵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 15분 오른 측면에서 사사키 리오를 속도로 제압한 최일선(6골)은 중앙으로 공을 몰고 올라오더니 기습적인 원발 슈팅을 쳤다. 이 공이 시라가키 노노의 몸에 맞고 굴절된 채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로써 최일선(6골)은 일본 최전방 공격수 히지카타 마야와 브라질의 나탈리아 벤티투(이상 5골)를 제치고 이번 대회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전반 슈팅 수(3-6), 유효슈팅 수(0-4)를 모두 크게 밀린 일본은 후반 초·중반 공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반격을 노렸으나 북한의 조직적인 수비를 뚫

지 못했다. 후반 37분 일본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 페널티박스 오른쪽 깊숙한 지역을 침투한 마스쿠보 마나가가 중앙으로 넘겨준 킥백이 고야마 시노미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고야마가 수비 견제 속 이득을 감수하지 못했고, 슈팅이 골키퍼 채은경의 정면으로 향했다. 이는 일본이 기록한 처음이자 마지막 유효슈팅이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경기를 모두 이겼다. 7경기에서 25골을 터뜨렸고, 4골만 내줬다. /연합뉴스

## 리디아 고, 크로저 퀸 시티 챔피언십 역전 우승

LPGA 투어, 유해란 3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가 크로저 퀸 시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승을 수확했다. 리디아 고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메인빌의 TPC 리버스벤드(파72·670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하나와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9언더파 63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2위 지노 티피쿰(태국·18언더파 270타)을 5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원)다. 올해 1월 2024시즌 개막전으로 열린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챔피언십 토너먼트와 지난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에 이은 리디아 고의 이번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그의 LPGA 투어 통산 승수는 22승으로 늘었다. 특히 리디아 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입 조건을 충족했고, 이후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데 이어 또 한 번 트로피를 들어 올려 최고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3라운드까지 선두 티피쿰에게 2타 뒤진 단독 2위였던 리디아 고는 티피쿰과 같은 조에서 경기한 이날 전반에 버디 3개로 3타를 줄였고, 10번 홀(파4) 버디로 공동 선두가 됐다. 11번 홀(파5)에선 투온에 성공한 뒤 이글까지 뽑아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리디아 고는 13번 홀(파4)



를 시작으로 버디 3개를 추가하며 격차를 벌려 압승을 거뒀다. 리디아 고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시즌 6승의 넬리 코다(미국·244점)에 이어 2위(144점)가 됐고, CME 글로벌 레이스에서도 코다(3735점)에 이어 2위(2500점)로 도약했다. 리디아 고는 26일 인천 비어즈베스트 청라에서 개막하는 후원사 주최 대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출전해 한국 팬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 선수 중엔 유해란이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3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날 초 FM 챔피언십에서 고진영과 연장 승부 끝에 시즌 첫 승이자 LPGA 투어 통산 2승을 올렸던 유해란은 5타를 줄여 시즌 10번째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